

연예종합

탈출키스 vs 베드신...누가 이길까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속 정우성·수애(왼쪽)의 키스신 못지않게 진한 로맨스를 연출하는 차승원·이지아(맨 왼쪽부터)도 벌써부터 시청자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사진제공 | 태원엔터테인먼트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정우성·수애’ VS ‘차승원·이지아’.
두 커플 중 어느 쪽이 더 진한 러브신의 주인공일까.

12월부터 방송 예정인 SBS 새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하 아테나)은 화려한 액션뿐만 아니라 정우성·수애와 차승원·이지아 등 두 커플이 선보이는 농도 짙은 애정신도 볼거리로 화제를 모을 전망이다. 정우성과 수애의 키스신은 일명 ‘탈출 키스’로 불리며, ‘아이리스’의 이병헌과 김태희의 ‘사랑키스’에 버금가는 장면으로 벌써부터 화제를 모았다.

‘아테나...’ 정우성·수애 vs 차승원·이지아 애정신 대결 수애·이지아 “밤샘 촬영...이렇게 농도 짙은 키스신 처음”

하지만 이들 못지않게 차승원과 이지아의 파격적인 키스신과 러브신도 기대감을 더한다. 두 사람의 키스신은 8월30일 열린 드라마 쇼케이스에서 처음 공개됐다. 특히 차승원과 이지아의 과감한 노출과 격정적인 베드신까지 이어지면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우성과 수애, 차승원과 이지아 등 각 커플은 나란히 경쟁이라도 하듯 농도 짙은

키스신으로 시선몰이에 성공했고, 드라마에서는 네 사람이 얹히고설킨 애정 관계에 놓으면서 긴장감까지 동시에 자극할 예정이다.

수애와 이지아는 “이렇게 농도 짙은 키스신은 처음”이라며 입을 모았고, 수애는 “정우성과 키스신이 밤늦게 시작했지만, 촬영에 몰두하느라 동이 트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지아 역시 “일에서는 철두철미하지만 사랑에는 솔직한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아테나’는 지난해 화제작 ‘아이리스’의 변외판으로, ‘아이리스’의 주요 배경이었던 특수조직 NSS 산하 범국가 위기 방지 특수기관 NTS 요원들이 신에너지원인 TWR을 둘러싸고 비밀조직 아테나에 맞서 벌이는 활약상을 담는다.

한편 8월3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가든 스테이지에서 열린 ‘아테나’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액션영화를 방불케 하는 폭파, 총격 장면 등도 함께 공개돼 시선을 끌었다.



군가 부르는 이정 가수 이정이 31일 경기도 화성군 해병대 사령부 위병소 앞에서 군가를 부르고 있다. 2008년 10월20일 해병 1080기로 입대한 뒤 모병적인 군생활을 해온 이정은 전역과 함께 새 앨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물’ 고현정 카리스마 철철

차인표와 불꽃 설전 첫 공개...“역시 고현정”

‘여자 대통령’으로 변신한 고현정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고현정은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후속으로 10월6일부터 방송하는 SBS 새 드라마 ‘대물’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 역을 맡았다.

‘대물’은 박인권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검사 출신 서혜림이 대선에 출마해 우여곡절 끝에 한국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고현정은 8월31일 전남 담양 다이너스튜디오에 마련된 촬영장에서 그녀를 정치에 입문시키려는 차인표를 만나 불꽃 튀는 설전과 카리스마 대결을 펼쳤다.

연출을 맡은 오종록 감독은 ‘대물’이라는 드라마 제목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나왔다”며 “고현정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카리스마 대결’ 톱스타 고현정(오른쪽)과 차인표가 8월31일 전남 담양 다이너스튜디오에서 드라마 ‘대물’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SBS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연예 뉴스 스테이션

서우, 드라마 속 영화배우로 복귀



연기자 서우(사진)가 ‘국민남동생’ 유승호와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인기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와 영화 ‘하녀’ 등에 출연했던 서우는 현재 방송 중인 MBC 주말드라마 ‘김수로’의 후속으로 10월 방송 예정인 ‘여자는 일생에 단 한 번 사랑한다’의 주인공 백인기役に 낙점됐다. 각종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휩쓸고 CF계에서도 각광받는 톱스타이자 파격적인 연행으로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다. 재벌 후계자인 유승호와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승기, 서울드라마어워즈 남자배우 1위
아시아 배우들을 대상으로 서울드라마어워즈가 진행한 누리꾼 인기투표에서 연기자 겸 가수 이승기가 남자배우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서울드라

마어워즈 사무국은 8월31일 “아시아 각 지역의 포털 사이트 야후를 통해 서울드라마어워즈의 출판작 배우를 대상으로 8월29일부터 8월26일까지 인기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란한 유산’의 이승기가 총 11만5108표를 얻어 남자배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여자 부문에서는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문채원이 6만6921표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준기·주지훈, 육군참모총장 표창장

뮤지컬 ‘생명의 한해’에 출연한 이준기와 주지훈, 김다현이 육군참모총장 표창장을 받았다. 또 이들은 무대에 오른 84명의 현역 군인 배우·스태프와 함께 6일까지 휴가를 갖는다. 세 사람은 8월29일 ‘생명의 한해’ 공연 직후 국방부로부터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인 뮤지컬을 통해 국민 안보의 식은 물론, 군 위상의 홍보에 기여를 한 공로”로 배우와 스태프를 대표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해 이들의 공로를 격려했다.

개그맨 서경석도 품절남 합류

20대 후반 미술학과와 11월께 웨딩마치



개그맨 서경석(사진)도 11월 결혼하며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다.

서경석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는 8월31일 오후 “서경석이 11월 초 결혼할 예정이다”면서 “그가 그동안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말해 왔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최근 결혼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경석의 예비신부는 20대 후반의 미술학도. 이화여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현재 모 의류회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던 5월 서경석은 자신이 진행하는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만만치 6개월 정도 됐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경석은 이날 자신의 결혼 사실과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보도자료 메일을 보내 “2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결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다”면서 “소중하고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 개그맨으로 유명한 서경석은 현재 ‘한밤의 TV연예’를 비롯해 KBS 2TV ‘위기탈출 넘버원’ 1TV ‘쾌적한국 미수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성균관 스캔들’된 사연...

KBS, 성균관측 항의에 ‘과’ 작은글씨로 끼워넣어



KBS 2TV 월화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 성균관 측의 항의에 따라 제목을 ‘절묘하게’ 교체해 방송 중이다.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사진제공 | KBS

‘성균관 스캔들’과 ‘성균관과 스캔들’의 차이점은?

최근 성균관 측이 ‘명예훼손’이라며 KBS 2TV 월화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제목 교체를 요구하자 KBS가 ‘절묘하고도 아슬한’ 방법을 선택했다. ‘성균관 스캔들’의 제작진 측은 방송을 앞두고 성균관 측과 합의해 제목에 ‘과’를 추가했다. 해당 드라마 홈페이지나 방송에서 보이는 제목 이미지를 ‘성균관과 스캔들’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과’자가 너무 작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 제작진은 “이미지 로고에만 ‘과’를 추가하기로 성균관 측과 합의했다”며 “하지만 시청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드라마 홍보 등 다른 제목에서는 기존 그대로 ‘성균관 스캔들’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러 “성균관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드라마 제목은 하나의 창작물일뿐, 있는 그대로 바꾸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성균관 측은 최근 드라마 제목 ‘성균관 스캔들’이 “성균관을 부정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면서 “성균관에 대한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제작진에 교체를 요구했다.

‘성균관 스캔들’은 소설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을 원작으로 한 청춘 드라마로, 동방신기의 멤버 박기우원이 연기자로서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월30일 첫 방송된 드라마는 시청률 조사기관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집계 결과에서 6.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성·연령별로는 여자 10대에서 시청률이 17%로 가장 높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한예조-제작사 협상 제자리...촬영거부 눈앞

외주제작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와 관련한 한국방송영화공업 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 소속 연기자들의 촬영 전면 거부 사태가 우려대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한예조는 8월31일 오후까지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예정대로 1일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예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와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 이렇다 할 해결 방안 역시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정대로 1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은 물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한예조는 앞서 출연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제작 중인 지상파 방송 3사의 외주제작 드라마 13편에 대한 촬영 거부를 천명해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연기자들의 촬영 거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 역시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한가닥 희망을 걸게 했다.

한예조는 KBS, MBC, SBS의 외주제작 드라마에 출연하고 받지 못한 출연료 누계금액이 7월 말까지 약 44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예조는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고 향후 미지급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사와 방송사가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